

“남원, 요천생태습지공원으로 놀러오세요”

시, 쓰레기매립장을 생태공원으로 바뀌 관광명소화 나서
정자·파라솔·음수대 등 설치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 제공

“요천생태습지공원으로 놀러오세요.” 남원시가 쓰레기매립장에서 생태공원으로 변신한 ‘요천생태습지공원’의 관광명소화에 나선다. 9일 남원시에 따르면 올해 생태습지공원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을 제공하고자 정자와 파고라, 파라솔, 음수대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또 관광버스의 원활한 주정차를 돕고자 대형주차장 조성을 추진한다. 초본류 식재를 늘려 아이들이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주생면 중동리의 쓰레기매립장 및 하수처리장을 87억원을 투입해 요천생태습지공원으로 지난 2014년 조성했다. 이후 시는 단지부와 습지부로 구분해 14만5298㎡ 규모의 생태습지공원을 꾸며 왔다. 현재 단지부에는 야구장과 다목적 운동장, 애견놀이터 등이 갖춰져 있다. 습지부에는 연꽃 등 수생식물이 서식하는 수질정화습지와 생태탐방로, 관찰 전망데크 등이 갖춰진 상황이다.

야구장과 다목적구장에서는 동호인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다. 또 그늘막과 모정시설을 설치하고 나무를 심어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쉬어갈 수 있는 쉼터도 조성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에는 애견놀이터 시설을 설치해 8개월 동안 1000여명의 반려인이 이용하는 등 지난해에만 1만5000여명이 요천생태습지공원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남원시는 요천생태습지공원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정자와 파고라, 파라솔, 음수대를 설치하는 등 관광명소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남원시 제공>

군산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 100억원 투자

국가균형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 사업 선정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온리원(only one) 고군산(Go Gunsan)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올해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선정된 전국 11건의 사업에 고군산 관광벨트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수립해 균형발전위 및 중앙부처와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3년간 100억 원 내외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군산의 경우 2017년 12월 고군산군도의 연결도로(국도 4호선)가 전면 개통되고 연육교가 조성돼 고군산군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체류형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예상되며, 그간 도서벽지 수준으로 낙후됐었던 고군산군도의 생활 SOC 확충과 주민주도형 소득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기획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신시도 여항 환경개선과 친수관광시설용지 조성, 신시도 자

연휴양림을 연결하는 노후도로 확충, 장자도 차도선 접안시설 확장, 무녀도 특산물 판매장 조성, 자율주행버스 운행, 주민여행사 운영, 고군산 구불길 걷기대회 등이 있다. 사업은 3년간 실시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420만명의 관광객수 창출, 290여명의 일자리 발생, 생산유발효과 374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45억원, 수입유발효과 56억원 발생이 예상된다. 특히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2023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시 고군산 일원 관광벨트의 한축을 수행함으로써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엔 선정된 ‘온리원(only one) 고군산(Go Gunsan)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균형위의 추가 컨설팅 실시 후 균형위원회, 중앙부처, 도 및 군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오는 6월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시, 산불예방 비상근무체제 돌입

군산시가 최근 건조한 날씨속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대형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군산시는 산불 특별대책기간인 15일까지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하고 예방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시 산림복지과를 중심으로 23개 읍면동에 설치해 오전 9시부터 일몰시까지 특별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산불 발생 우려가 높은 주말에는 시청 직원들을 각 읍면동 산림에 배치해 소각행위 계도 및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산불예방 및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초동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순창군,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사용 지원사업 추진

순창군은 그간 남녀 출입구가 같이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여성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화장실 출입구가 같이 몰카 설치 등 범죄에 취약하고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여성들을 위해 군이 민간 공공화장실 사업주에게 시설보수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군은 오는 30일부터 해당 사업 신청자를 접수 받는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지원 대상은 순창군이 개방 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과 개방 화장실로 최소 3년 지정을 조건으로 운영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 제17호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이다. 군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와 지원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남녀 화장실 분리에 들어가는 공사비의 최대 50%(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익산=유영정 기자 yjy@



정읍시재향군인회, 평화전망대 등 안보현장 견학

정읍시재향군인회(회장 윤재동) 회원 120여명은 최근 강화도 평화 전망대와 역사박물관, 갑곶돈대로 안보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사진> 평화전망대는 강화도 양사면 철산리 민통선 북방지역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준공돼 2008년 9월 5일 개관했다. 민간인에게 개방되어 주말에는 1000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명소다. 2층 전시실에는 한국전쟁 당시의 배경과 국내·외 전쟁 발발 과정과 그 이후 생

애 잊지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상황 등을 볼 수 있는 영상 시설이 있다. 3층 북한 땅 조망실에서는 여성강과 개성 공단, 북한주민의 생활모습과 선전용 위장마을 등을 조망할 수 있다. 윤재동 정읍시재향군인회 회장은 “평화의 시대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국가안보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주세계소리축제’ 참여 소리꾼 찾습니다

조직위, 내달 9일까지 5명 모집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소리축제의 대표 판소리 프로그램 ‘젊은 판소리 다섯바탕’에 참여할 소리꾼 5명을 다음 달 9일까지 모집한다. 참가 자격은 만 19세 이상 36세 이하의 남녀 소리꾼으로, 60분 이상의 소리판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소리축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함께 소리를 녹음한 음원 또는 CD를 가지고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와 음원 심사를 통해 선정된 소리꾼들은 축제 기간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뒤편에 마련된 편백숲(오송제) 무대에 오른다. 젊은 판소리 다섯바탕은 ‘판소리 다섯

바탕’과 함께 소리축제를 대표하는 판소리 간판 프로그램으로, 젊은 소리꾼들을 통해 판소리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고, 우리 소리의 색다른 매력을 만날 수 있는 무대다. 매년 그 해 최고의 젊은 소리꾼으로 인정받고 무대에 설 수 있는 등용문이자, 대중에게 친숙히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의 무대다. 조직위 관계자는 소리축제는 젊은 국악인들을 위한 다양한 무대를 고민하고 젊은 소리꾼들을 위한 최고의 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숨은 실력을 가진 젊은 소리꾼들의 패기 있는 도전과 무대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소리축제는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다섯시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 14개 시·군에서 열린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익산시,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선정 국비 4억 확보

익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문화가 머무는 안전주차장, 라운드어바웃@익산’이 선정돼 국비 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2020년까지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에 안전디자인을 적용해 환경 및 시설물을 개선하고 지역의 생활문화나 축제, 이벤트를 수용하는 다목적 장소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영주차장의 새로운 모델과 브랜

드를 개발해 원도심의 대표 전통시장인 중앙시장과 문화예술거리 등의 공영주차장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김성도 익산시 도시재생과장은 “전통시장과 문화예술거리의 낙후된 주차시설에 안전디자인을 적용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장기적 발전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영정 기자 yjy@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구,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8평(전용 약 23평)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 보5백만원에 월50만원에 임대가능
- 시세 - 1억 2000만원 정도
- 급매 - 8500만원

덕남동,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
- 임야 22600평중 3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매매 - 7,500만원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8억 8천만원(일시불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